미라클 5월 1회 모임 협의 결과

□ **개최일시** : 2023. 5. 3(수). 14:00 ~ 17:00

□ **협의내용**

○ 토론 도서 5권 심시 및 선정 - "아버지의 해방일지" 외 4권

○ 토론주관 및 발제자

- 회원별 순서에 따라 토론 주관(김금순→조선숙→김라희→박영미→김안나)
- 월별 발문 2개씩 작성해서 동아리 개최 전 회장에게 송부
  . 회장이 취합하고 정리하여 토론에 활용
  . 회원 순번으로 발문 순서 확정

○ 학습 결과물 정리 방법 협의

- 결과물 작성 기본 서식에 따라 기록 후 동아리 모임 시 제출
-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제출은 필수

○ 월별 모임일정 협의: 표 목록 참고

○ 모임장소 협의

- 회원들의 이동 동선과 학습 집중 환경 감안
- 일반 지자체 개방시설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 장소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월, 6월 모임: "꿈두레" 오산시립도서관 확인 후 결정
  - 7월 모임: 망포고등학교(방학기간 개최, 점심 예정)
  - 8월 모임: 경기도교육복지센터
  - 9월 모임: "꿈두레" 오산시립도서관 추후 결정

○ 동아리 회비 사용 계획(충분한 협의 부족)

- 지원금액: 257천원

  * 동아리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간식비 등 사용 예정

□ 모임 일정 및 토론 선정 도서 목록

예정일	토론도서	토론 및 발문
5월 31일 (수요일) 14:00 ~17:00	•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장편소설) 저자 정지아 출판 창비 발행 2022.09.02. 리뷰 ★4.9(274) 랭킹 종합 부문 26위	- 진행: 김금순 - 발문: 정지연 손지영
6월 21일 (수요일) 14:00 ~ 17:00	• 결정적 순간의 대면  [국내도서] 결정적 순간의 대면 캐리 패터슨, 조셉 그레니, 론 맥밀런, 알 스위틀러 (지은이), 김경섭 (옮긴이) | 김영사 | 2008년 10월	- 진행: 조선숙 - 발문: 김안나 박영미
7월 26일 (수요일) 13:00 ~ 17:00	• 불편한 편의점 1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장편소설, 40만부 기념 벚꽃 에디션 저자 김호연 출판 나무옆의자 발행 2021.04.20. 랭킹 소설 부문 7위 [교보문고] 책 리뷰 379 ★★★★★ 4.8 > #2022포천시올해의책 #2022광양시올해의책	- 진행: 김라희 - 발문: 윤옥희 김연희
8월 23일 (수요일) 14:00 ~ 17:00	•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베스트셀러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KBS 제작진이 밝힌 걷기의 기적 저자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출판 비타북스 발행 2022.03.31. 랭킹 건강/취미 부문 45위 [교보문고] 책 리뷰 10 ★★★★½ 4.5 >	- 진행: 박영미 - 발문: 양희은 김라희
9월 20일 (수요일) 14:00 ~ 17:00	•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저자 김범준 그림 최광열 출판 위즈덤하우스 발행 2018.11.01. 책 리뷰 12 ★★★★★ 4.7 >	- 진행: 김안나 - 발문: 조선숙 김금순
10월 (미정)	•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 진행상황 정리 발표 - 느낀점, 배운점, 향후 개선할 점 평가	- 진행: 김금순 - 정리: 김연희

□ 도서명 :

저자명		출판사		읽은 날짜	
내용 소개)					
인상 깊은 문장)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미라클 추천 도서 목록

추천 도서 목록

1. 설득의 12가지 법칙, 저자 김시래
2. 결정적 순간의 대면, 저자 조셉 그레니외
3. 어려운 질문, 중요한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4.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5. 생각 정리 스피치
6. 늘어감의 기술
7. 자기만의 빛, 저자 미셸 오바마
8. 아버지의 해방일지

구분	활동 내용	비고
1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여든 앞에 글과 그림을 배운 순천 할머니들의 그림일기 저자: 권정자외, 출판: 남해의봄날, 발행: 2019.02.01.	
2	**오리지널스** 어떻게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저자애덤 그랜트, 출판한국경제신문,2020.12.22.	
3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저자조던 B. 피터슨, 번역강주헌, 출판메이븐, 발행 2018.10.30.	
4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저자김승호, 출판스노우폭스북스, 발행2020.06.15.	
5	**다산의 마지막 습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저자조윤제, 출판청림출판, 발행 2020.11.16.	

구분	도서 목록	비고
1	순례주택, 저자: 유은실	
2	어린왕자, 저자: 쌩떽쥐베리	
3	결:거칢에 대하여, 저자 홍세화	
4	인간의 흑역사	
5	보통의 존재, 저자 이석원	
6	불편한 편의점(1,2)	
7	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저자:데일카네기)	
8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저자 김범준)	
9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10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안KBS생로병사 비밀 제작팀)	
11	날씨와 얼굴(저자 이슬아)	
12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저자: 권정자외	
13	오리지널스 저자애덤 그랜트	
14	돈의 속성 저자김승호	
15	다산의 마지막 습관 저자조윤제	
16	무연사회 저자:NHK무연사회프로젝트팀	
17	달과 6펜스 저자 서머싯 몸	
18	우리와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 저자:베레비	
19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저자 권일용	
20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자김혜남	
21	원청(잃어버린 도시) 저자 위화	

미라클 5월 2회 모임 협의 결과

□ **개최일시**: 2023. 5. 31(수). 14:00 ~ 17:00. □ **참석현황**: 8명/10명

□ **장소:** 오산 꿈두레도서관 문화교실1

□ **활동내용**

○ 6월 3차 토론도서 변경 - **어린왕자**(헤밍웨이)로 변경

※ 당초 계획했던 도서 "결정적 순간의 대면" 이 절판되었고, 공공도서관에도 거의 비취되어 있지 않음

○ 독서토론

- "아버지의 해방일지" 등장 인물 분석(별첨)
- 전라도 사투리 대사 읽어보기 및 의미 해석(별첨)
- 독서토론

○ 독서록 협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6명 제출)

- 실명 공개에 따른 부담감 해소를 위해 작성자 이름은 생략하고 제출

○ 기타 7월 모임 장소 협의

- 7월에는 방학 기간이므로 가평이나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등에서 모임을 개최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6월 모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토론내용**: **"아버지의 해방일지"** , 저자:정지아

토론주관: 김금순	논제 발제: 정지연, 손지영
1. 전체적인 독서 소감: -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아버지에 대한 회고의 계기 등 2.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 - "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의미가 담긴 문장 추측, 세상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종말 등, "아버지는 뱃속까지 유물론자였다" 유물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음	

3. 각자가 생각하는 본 도서속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지 토론:
- 딸바보, 포용력이 있는 아버지, 신념이 확고 하기 때문에 내면의 바람직한 가치가 무너졌을 때 용납을 못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면 노무현, 박원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성향임, 특히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말씀하시던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의 대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죽음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버지 스스로 의도적인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음

4.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생을 보면서 회원들 각자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토론:
-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해서 편안한 대화로 친밀감 조성
-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다가가려고 함
-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봄
- 티타임 등을 통해 일상적 대화로 상대방 이해
-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맞춤형 소통
- 직원들의 감정과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며 관심·격려·위로 등을 통해 다가감
- 상급자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솔선수범하며 함께 함

5.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과 회원들 각자의 신념:
- 시대의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모습
- 오랫동안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임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 후임자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전임자의 업무처리와 행위라도 전임자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

6. "그러니까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생각:
- 사람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사람이니까 나약하기 그지 없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용서와 넓은 포용력을 보여줌

7. "아버지의 진정한 해방"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빨치산이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삶 자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었음. 사회주의라는 이상적 세상을 꿈꾸기도 했지만 실현 할 수 없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기도 함. 사람을 향한 애민의 정신을 솔선수범하며 실천하는 모습에서 이미 진정한 자유인이 아닐까 생각함.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고 봄

8. 아버지의 유골을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곳에 뿌리게 되는 안치 방식 의견 토론
- 공감: 유물론을 신봉했던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른 것이고, 죽어서도 자유를 찾아주기 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공감못함: 부모님 사후에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골을 추모공원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해야 함.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 생각함

※ 다양한 의견 중 일부만 기록함. 10개의 논제 중에 시간 관계상 2개는 토론하지 못했음

※ 6월 독서토론 안내: 6월 21일. 14:00, 꿈두레도서관

- 일시: 6월 21일 수요일. 14:00
- 장소: 꿈두레도서관
- 토론진행자: 조선숙
- 논제 발제자: 김안나, 박영미

※ 회비 집행: 28,950원/257,000원(과자 및 음료)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 논제

1.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고씨 집안의 자랑이자 원흉인 사회주의자 아버지 고상욱 전직 빨치산이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

2.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3. **아버지는 지독한 실용주의자, 동네 머슴, 농짖거리하는 남자, 감옥에 갔다온 사회주의자 아버지, 글로하는 농사꾼, 동네 할배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책속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4. 박한우 선생은 아버지의 동기동창으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 지리산에 파견되어 "수도사관 대공세(48면)에 투입된 후, "자신의 총알이 형과 누이와 친구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삽니다. 그는 군에 말뚝을 박고 예편한 뒤에는 교련선생이 되는데, 아버지는 "그 심리"(48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선생은 또한 "평생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요. 화자는 그가 "진심이었는지 방어였는지"(50면) 알 길이 없다며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박한우 선생의 이러한 결정들을 공감하시나요?

박선생의 형은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었다. 누나 둘도 지리산서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신우형, 복례누이, 복화누이, 상욱아, 총을 쏠 때마다 손이 떨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네. 총구를 하늘로 겨눠도 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내 총알에 누군가 죽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 누구도 내 총에 죽는 일만 없기를 날마다 기도한다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세." (48면~49면)
문득 궁금했다. 박선생은 왜 평생 조선일보를 구독했을까? 진심이었는지 방어였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50면)

5. 소설 첫 문장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입니다. 작가는 아버지는 언제나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던 사람인데 그 방식이 사회와 통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며, 전기를 소통시키는 전선의 지지대인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서라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생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 화자인 딸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장례식에 참석한 아버지의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왠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가깝게는 나의 가족, 업무를 하면서는 직원들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6. 부모님은 4년여의 빨치산 생활 때문에 평생을 빨갱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민중" 이라던지 "유물론"이라던지 하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져보이는, 하지만 본인들이 믿고 따랐던 신념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 사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던 중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는 울음으로 그 순간을 보내줍니다.

이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지키고자 했었던 신념이나 생각이 있을까요?

7. (p138)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아버지도 구례 사람들도 나는 늘 신기했다. 잘 죽었다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과 아버지는 어떻게 술을 마시며 살아 온 것일까? 들을 수 없는 답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긍게 사람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싫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관계를 맺지 않았다. 사람에게 늘 뒤통수 맞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탓인지도 몰랐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생각에 공감 하시나요?

8. 아버지는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빨치산이 되었지만 결국은 사회 물정에 어두운 오지랖 넓은 아저씨로 남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친구들 중 조선일보 애독자인 박선생 같은 우파도 있던 것을 보면 결국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일생을 빨치산으로 살았고 재산도 어떤 이익도 얻을 것 없는 사람의 죽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죽음을 애도하며 기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해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화자가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아버지는 무덤도 필요없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유골을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곳들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화자의 결정에 공감하시나요? 내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10.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고 우리가 행정실장으로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라도 구례의 지방 방언

"소쿠리를 팔러 왔는디 그만 나갈 때를 놓쳤다마. 엄동설한에 워디서 잘 것이여. 당산나무 밑에서 코를 빼고 안것는 것을 나가 우리 집서 자자고 델꼬 왔네. 후딱 밥부텀 채리소."
"참말 죄송시럽그만이라. 따신 방은 무신, 외양간이라도 좋응게 하룻밤 신세 쪼까 지겄어라."

"밥이야 채리겄제만 잠은 딴 디서 자라고 허씨요. 우리 집이 방이 워딨소? 아래 성님댁에 빈 방 많찮애라."
"아이고, 다 듣겄소. 워디서 자고 댕긴 줄도 모르는 여자를 워치케 야하고 재운다요? 베룩이라도 옮으면 워쩔라고."

"자네, 지리산서 멋을 위해 목심을 걸었능가? 민중을 위해서 아니었능가? 저이가 바로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킬라 했던 민중이여, 민중!"
"아이고, 개헌티 이만히 말을 했어도 알아들었것소. 옷 털고 손 씻는 것이 멋이 월매나 힘들다고 번번히 속을 뒤집는가, 나가 참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겄소."

"알고 봉게 당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구만. 사회주의의 기본은 뭐여?"
"그야 유물론이제라."
"글제! 글먼, 머리는 뒀다 뭣혀! 생각혀봐. 사람은 하나님이 여개 사람이 있어라, 고런 시답잖은 말 한마디 했다고 하늘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먼지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여. 긍게 자네가 시방 쓸고 담고 악다구니를 허는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시원 이니겄어? 사회주의자는 일상에서부텀 유물론자로 살아야 하는 법이여."

"총구를 하늘로 겨눠도 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내 총일이 누군가 죽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제발 죽을 일만 없기를 날마다 기도한다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게. 살아서. 꼭 살아서. 다시 만나세" (박한우)

"어이, 동상." "어머님헌티 인사나 쪼까 드릴라고."
"우리 바깥양반을 워치께 아까요? 영감 아는 사람은 나도 다 아는디...." "월매나 고생이 많았으까.... 아부지도 읎이."
"그 세월을 워치케 말로 다 하겄어라. 이 집 저 집 다님시로...."

"오죽했겄어라. 암말 안 해도 다 아요. 우리덜 모다 고런 시상을 살았응게. 참말 고생 많았소. 아부지 원망도 많이 했제라?"
"에레서는 철없이 그랬그만요. 내 피를 싹 바꿔부렀으면 싶고 그랬제라. 근대 나도 늘고 봉게 우리 아부지가 워쩐 사람이었능가 궁금허기도 허고 그려서 고 선상님을 찾아뵌 것이그마요."

"글먼 따신 집 안에 가만있제 먼 옘벵헌다고 새복 댓바람부텀 설치고 댕기나, 영감탱아. 글다 풍 맞는다이"
"이런 반동 신문을 멀라고 아깐 돈 주고 보는 것이여!. 한겨레로 바꽈 이번 기회에. 헹상 교련선상 합시로 민족통일의 방해꾼 노릇을 했으믄 인자라도 철이 나야 헐 것 아니냐!"

"니나 바꽈라. 뽈갱이가 뽈갱이 신문 본다고 소문나면 경을 칠 탱게."
"니 아부지가 시방 니 아부지가 아니다. 정신줄 놓은 양반이 워디서 훔쳤다냐 워쨌다나, 베라벨 생각이 다 안 들겄냐. 참말로 식겁했어야. 긍게 다시는 돈 보낼 생각 말그라. 니가 피땀 흘려 번 돈, 술로 담배로 다 날레분다. 니 아부지가 시방"

"아이고, 워디 물레줄 것이 읎어서 허다허다 빚꺼정 물레줄라요? 애비가 돼가꼬 딸내미헌태 해준 것이 멋이 있다고 쟈를 보증을 세우요. 세우길. 당장 그년 찾아오씨요."
"글고 봉게 어제 냉기고 간 쐬주 반벵이 냉장고에 있을 것인디.... 인자 못 잡수러 오겄구마이. 참말로 술을 좋아하셨는디... 하루에 시벵씩은 꼭 잡솼응게."

"아이가, 헹수가 하나만 알제 둘은 모리구마. 양주도 잘 잡솼어. 읎응게 못 잡솼제. 울 삼촌이 양주를 쐬주맹키 고뿌에 따라가꼬 한방에 완샷을 때러분 싸나이 중의 싸나이여!"

"여호와의 증인 믿으면 집안 말아묵응게 다리몽뎅이를 뿌사뿔라고, 니가 그랬냐, 안 그랬냐? 이래 잘사는 아그를 니 말 들었다가 벵신 만들 뻔했어야!"
"넘들이 다 근당게 걱정되야서 그랬제 나가 겡희 벵신 만들라고 그랬겄소? 잘살면 됐제 고거이 원제적인디 시방 와서 난리대, 난리가, 와따, 할마씨가 손도 맵네이. 웜마 아파라."

등장하는 인물들

인물	설명
아버지 (고상욱)	사회주의와 유물론을 신봉하는 전직 빨치산.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도 했지만 살아가면서는 넓은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을 내일처럼 도와줌. 이념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인물
어머니	전직 빨치산이며 아버지와 같이 산회주의와 유물론 신봉.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남편을 이해하며 내조.
딸 (고아리)	소설의 화자. 아버지와 평생 반목했던 딸이 3일간 장례를 치르면서 찾아오는 조문객과 지인을 통해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됨
박한우	아버지의 절친. 중앙초등학교 35회 졸업생으로 아버지와 동기동창. 교련선생. 박선생의 형은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음. 누나 둘도 지리산에서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함.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도병에 끌려갔던 박선생은 하필 수도사단 소속으로 51년 겨울 지리산에 파견됨. 자신의 총알이 형과 누이와 친구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박선생은 군에 말뚝을 박음. *군인으로 빨치산 형제자매와 마주 섰던 자가 군에 말뚝을 박은 그 심리를 아버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박선생은 예편한 뒤 하릴없는 교련선생으로 세월을 보냈다.*
박동식 (민노당원)	아버지의 정치적 동료이자 절친한 동생. 동네머슴 노릇을 자청하는 사람. 아버지의 영정사진도 미리 준비해두고, 친척들 상복까지 헤아려 줌. 조문객들을 특유의 오지랖으로 살뜰히 잘 챙김
황사장	장례식장 공동 사장 3명 중 한명. 아버지를 삼촌이라 불렀음. 황사장의 아버지(황길수)와 작가 아버지(고상욱)는 같은 빨치산 활동을 함. 황사장의 아버지는 여순 직후에 피앗골로 이동하려고 섬진강 도강하다가 총 맞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 황사장은 박동식씨의 의형제이기도 함
한의사	죽은 동지의 형. 아버지는 그에게 동생을 대신함. 전기고문을 받고 불임상태가 된 아버지에게 한약을 지어주어 딸을 낳게 함. 또 작가는 생리통에 지어준 한약을 먹고 완쾌함. 작가는 한의사가 본인을 세상에 불러내어 고통을 준 원흉이라 생각하고 멀리하며 쌀쌀맞게 대함. “나도 모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이 그만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란 이렇게 미욱하다" 며 철이 들고 후회하게 됨.
큰집 길수 오빠	위암 말기. 육사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에 걸려 입학도 못하다가 연좌제가 풀리고 말단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재 부 군수 승진을 앞두고 있었음
떡집 언니	어머니 동료의 딸. 남편도 없이 자식 다섯 딸린 본인 형편은 아랑곳 않고 어머니를 친딸 못지않게 챙겨 줌. 장례식 치르는 동안 주방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쌀뜰히 챙겨주었음
영자	장씨 집 맏이. 중학 졸업 후 신발공장 취직. 냄새가 심해서 사람 접촉도 꺼리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소개해준 전대 내과 의사에게 수술받고 치료 완료. 결혼해서 잘 잘고 있음
경희	큰집 큰언니의 딸. 작가의 조카 뻘이지만 나이는 더 많음. 어려서는 조카에게 이모라 부르지 않았음. 여호와증인으로 부모(큰언니) 갈등이 깊었는데 아버지가 중재로 종교 인정. 지금은 결혼해서 서울에 집도 사고 잘 살고 있음
작은아버지 (고상호)	면당위원장까지 한 형이 자랑스러워 학교로 쳐들어온 군인에게 자랑했다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분노를 안고 살아감. 형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
상의용사 노인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다리 잃음. 술주정꾼. 형님이 아버지와 동창이며 친구사이였음. 같은 좌익으로 형은 죽었는데 아버지만 살아남아 사는 것에 대한 시기(부러움)
노랑머리 아이 오거리 슈퍼 손녀	베트남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아버지의 폭력으로 불운한 가정에서 살며 담배와 술을 마시는 등 탈선 행위를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미용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을 오픈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음
윤학수	작가와 동기동창이면서 아버지와 막역지우 사이. 대기업 퇴사하고 월급도 없는 지역사회 연구소에에서 일하며, 여순사건 실태조사도 하고 있음. 빨치산 동지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현무막 걸자는 걸 해결해 줌
김상욱	고교 졸업 후 카톨릭농민회 초창기 멤버. 1.5톤 트럭을 몰려 이사 때마다 아리를 도와줌.
전직순경	보급투쟁중의 생명을 살려준 아버지를 은인으로 생각함
소선생	아버지의 어머니의 은사이며 두사람을 중매한 당사자이기도 함. 소선생의 아들이 생선 등을 갖다주며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기도 함

아버지의 해방일지 발제문

1.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2. 소설 첫 문장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입니다. 작가는 아버지는 언제나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던 사람인데 그 방식이 사회와 통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며, 전기를 소통시키는 전선의 지지대인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서라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생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 화자인 딸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장례식에 참석한 아버지의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는 늘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왠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가깝게는 나의 가족, 업무를 하면서는 직원들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3. 부모님은 4년여의 빨치산 생활 때문에 평생을 빨갱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민중" 이라던지 "유물론"이라던지 하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져보이는, 하지만 본인들이 믿고 따랐던 신념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 사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던 중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는 울음으로 그 순간을 보내줍니다.

   이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지키고자 했었던 신념이나 생각이 있을까요?

4. (p138)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아버지도 구례 사람들도 나는 늘 신기했다. 잘 죽었다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과 아버지는 어떻게 술을 마시며 살아 온 것일까? 들을 수 없는 답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긍게 사람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싫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관계를 맺지 않았다. 사람에게 늘 뒤통수 맞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탓인지도 몰랐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5. 아버지는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빨치산이 되었지만 결국은 사회 물정에 어두운 오지랖 넓은 아저씨로 남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친구들 중 조선일보 애독자인 박선생 같은 우파도 있던 것을 보면 결국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일생을 빨치산으로 살았고 재산도 어떤 이익도 얻을 것 없는 사람의 죽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죽음을 애도하며 기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해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화자가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아버지는 무덤도 필요없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유골을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곳들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화자의 결정에 공감하시나요? 내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발제문

저자명	아버지의 해방일지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26.

내용 소개)

-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고씨 집안의 자랑이자 원흉인 사회주의자 아버지 고상욱 전직 빨치산이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1.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은 후의 간단한 소감, 인상 깊었던 구절등을 공유해주세요

2. 아버지는 지독한 실용주의자, 동네 머슴, 농짖거리하는 남자, 감옥에 갔다온 사회주의자 아버지, 글로하는 농사꾼, 동네 할배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책속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자명	아버지의 해방일지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26.

내용 소개)

-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고씨 집안의 자랑이자 원흉인 사회주의자 아버지 고상욱 전직 빨치산이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3.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은 후의 간단한 소감, 인상 깊었던 구절등을 공유해주세요

4. 아버지는 지독한 실용주의자, 동네 머슴, 농짓거리하는 남자, 감옥에 갔다온 사회주의자 아버지, 글로하는 농사꾼, 동네 할배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책속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 31

책자 소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고씨 집안의 자랑이자 원흉인 사회주의자 아버지 고상욱 전직 빨치산이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을 담은 이야기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

토론하고 싶은 내용)

소설 첫 문장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입니다. 작가는 아버지는 언제나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던 사람인데 그 방식이 사회와 통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며... 이렇듯 작가의 아버지의 대한 삶의 의미와 딸인 작자의 시각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고 싶다

배운점과 느낀점)

자전적 소설인 작가를 통해서 어릴적 바라본 이해못했던 아버지를 나이가 들어서 다시 생각해본 아버지의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 자신도 어릴적 "하룻강아지 범 모르던 시절" 들이 떠 올랐다. 같은 상황도 예전에 느꼈던 감정과 나이가 들어서 생각한 감정들은 많이 달랐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고 시야가 더 넓어졌다. 나무만 보지않고 숲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아닐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깨달음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소설이었다.

토론 후 소감)

같은 문장과 내용이라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첫문장에서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가 나왔을 때 너무 강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난 첫 문장에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암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의문을 가지며 읽었고 치매,, 그리고 평생 주변에 폐끼치는 것을 꺼려했던 아버지의 성격상 자살을 했을거란 전제로 읽게 되었고, 산천에 재를 뿌려달라고 했을때는 평생 살아온 자연에서 영원하고 싶었을거라 생각했는데,,, 다른관점에서는 자식도리로서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었다. 과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게 최선일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투리가 너무 재미있다고 발췌해와서 서로가 읽어보고 흉내내보는 시간이 뜻깊었다.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 31

내용 소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버지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해방이후 근 현대사 70여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버지의 빨치산 경력이 본인의 삶과 가족, 친척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오가는 내용들이 인물별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한때 좌우 이념으로 분리되어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형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화자의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주인공, 동생, 사촌까지 연좌제 속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상황들이 나온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으로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꿈꾸었던 아버지는 자본주의의 편견과 속박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죽어서야 해방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인상 깊은 문장)

처음에는 스스로 곳간을 열어 먹을 것을 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숨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한테 득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 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민중이여. 민중이 등을 돌린 헥맹은 폴세 틀려묵은 것이제" 늙은 아버지는 알았지만 젊은 아버지는 몰랐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아버지)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이 강하고 본인만의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명확함. 특히 민중에 대한 사랑과 평등, 박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살면서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어머니) 아버지의 혁명 동지이기도 함. 가정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 서운함도 표현하지만 옳고 정당한 일을 하는 남편의 결정에는 순순히 따라주는 미덕을 지님
(리더십 적용) 1.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리더십에 적용해볼 만한 함 -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언행일치가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있음. 2. 여호와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버린 경희를 사촌 언니가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차분하게 처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리더들의 위기 상황 대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음(평정심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공)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해방 전후 6.25를 겪고 난 후 근 현대사 70여년의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에 대해 소설을 통해 엿볼 수 있었음. 좌우 이념 대립의 혼란기 속에서 부모 세대들이 영문도 모르고 가담했던 이념분쟁으로 고통을 겪었던 상황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음

월북한 가족이 있는 가정과 친척들의 연좌제로 인해 감시받고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따가운 시선으로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졌던 좌파적 이념은 오로지 평등하고 다같이 어울려 잘 살자는 이유였음을 생각해 보며 편협한 시각보다는 항상 냉철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사리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토론 후 소감)

[독서토론 결과물 서식]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3.5.19

내용 소개)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를 치르는 기간동안 빨치산 부모밑에서 자란 딸로서의 삶과 미쳐 몰랐던 아버지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서글프고, 억울하기도하고, 재밌게 기술한 이야기이며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몰랐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위해 바치는 책입니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사촌오빠인 길수오빠가 육사합격을 했을 때 연좌제에 걸려 입학하지 못한 상황이 사촌오빠의 부모의 입장과 당사자인 아버지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였을까... 그 억울함을 참고 연좌제가 풀려 공무원 시험합격 후 부군수 승진을 앞둔 상황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사촌오빠의 처지가 너무 가엽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유물주의는 의식이나 정신따위 실재를 부정하고 우주만물의 궁극적 실재는 물질이라고 보는 이론으로 빨치산 아버지는 철저한 유물론자였다. 사적인 이익은 철저히 배제하고 욕심이 없으니 공정하게 사건과 인물을 바라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내가 자라온 시대는 정치적 이념,신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때였다. 그저 부모님이 챙겨주는 옷가지와 음식 학교를 세월좋게 다녔고 빨치산의 이야기는 그저 나와는 관련없는 먼이야기일 뿐이었는데 시대의 격동기에 청년기를 맞아 지켜온 신념하나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까지 연좌제의 피해를 줘도 어느곳에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시대에 산 어른들을 안타깝게 느끼고 그런와중에도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뎌온 분들에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토론 결과물 서식]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05.08

내용 소개)

빨치산이였던 아버지의 장례식을 딸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아버지를 이해가는 이야기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버지와 다양하게 얽힌 사람들이 찾아오며 듣게 되는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누구에게도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아버지, 관리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편견 없는 진솔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나는 새삼 격변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신념과 상황간의 괴리를 이기고 순응하며 살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그 분들은 묵묵히 살아가야했다는게 너무 슬프고 대단하게 보였다.
그리고 전쟁 이후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드신 실질적인 인물들이란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있는 역사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17

내용 소개)
'전직빨치산' 인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를 치르는 3일간, 오고 가는 사람과 말들 속에서 화자인 딸은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주 일부였음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 빨치산 아버지는 사회주의자 이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저 평범한 따듯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사램이 오죽하면 글겄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정이 잘 드러나는 말)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아버지가 살려준 청년)
보급투쟁을 위해 마을을 뒤지는 빨치산들. 그때 다락방에 숨어있던 어린 경찰을 발견한 아버지는 "순겡을 그만둔다고 허먼 살레줄라요 " 라고 말하며 순겡을 그만둔다는 그를 살려준다.
생명의 은인인 아버지를 따라 빨치산을 따라나선다는 그를 아버지는 극구 만류하였고 후에 아버지는 청년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질게 뻗한 전쟁이었고 우리야 기왕지사 나선 몸이지만 당신은 사상도 없고 신념도 없으며, 뻔히 질 싸움에 끼어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민족이나 사상을 떠나 사람이 먼저인 포용의 리더십을 볼 수 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이념이나 사상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삶,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토론 후 강평)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1차)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28

내용 소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3일간 치러지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와 다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의 조문을 통해 아버지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다. 빨치산의 딸로 자라온 작가는 주변 사람들을 돕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아버지를 원망했었지만 조문객들의 사연을 듣고 힘든 삶을 살아온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슴아파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느끼게 된다.

인상 깊은 문장)

-죽음으로 비로소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날의 아버지로 부활한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유골을 손에 쥔 채 나는 울었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탓인지 유골이 차츰 따스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아버지(고상욱):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라는 말이 십팔번, 아무 조건없이 다같이 잘 살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자

딸: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있게 됨

박한우: 아버지의 친구, 삼오시계방을 운영하며 평생 조선일보 구독

윤학수: 작가의 대학동문이자 아버지에게 아들같은 존재

작은아버지(고상호): 평생 형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자랑스럽게 여겼던 동생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아버지의 삶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론, 죽고나서야 비로소 고단한 삶이었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허무하고 씁쓸한 느낌이 든다.

토론 후 소감)

□ 도서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명	정지아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 31

내용 소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버지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해방이후 근 현대사 70여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버지의 빨치산 경력이 본인의 삶과 가족, 친척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오가는 내용들이 인물별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한때 좌우 이념으로 분리되어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형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화자의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주인공, 동생, 사촌까지 연좌제 속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상황들이 나온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으로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꿈꾸었던 아버지는 자본주의의 편견과 속박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죽어서야 해방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인상 깊은 문장)

처음에는 스스로 곳간을 열어 먹을 것을 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숨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한테 득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 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민중이여. 민중이 등을 돌린 헥맹은 폴세 틀려묵은 것이제" 늙은 아버지는 알았지만 젊은 아버지는 몰랐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아버지)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이 강하고 본인만의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명확함. 특히 민중에 대한 사랑과 평등, 박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살면서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어머니) 아버지의 혁명 동지이기도 함. 가정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 서운함도 표현하지만 옳고 정당한 일을 하는 남편의 결정에는 순순히 따라주는 미덕을 지님
(리더십 적용) 1.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리더십에 적용해볼 만한 함 -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언행일치가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있음. 2. 여호와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버린 경희를 사촌 언니가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차분하게 처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리더들의 위기 상황 대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음(평정심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공)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해방 전후 6.25를 겪고 난 후 근 현대사 70여년의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에 대해 소설을 통해 엿볼 수 있었음. 좌우 이념 대립의 혼란기 속에서 부모 세대들이 영문도 모르고 가담했던 이념분쟁으로 고통을 겪었던 상황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음

월북한 가족이 있는 가정과 친척들의 연좌제로 인해 감시받고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따가운 시선으로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졌던 좌파적 이념은 오로지 평등하고 다같이 어울려 잘 살자는 이유였음을 생각해 보며 편협한 시각보다는 항상 냉철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사리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토론 후 소감)

□ 결과물

저자명	아버지의 해방일지	출판사	창비	읽은 날짜	2023.5.26.

내용 소개)

-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고씨 집안의 자랑이자 원흉인 사회주의자 아버지 고상욱 전적 빨치산 이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인상 깊은 문장)

"오죽허면 그랬겄냐?"라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아버지

화상으로로 검지가 뭉그러진 딸 친구를 보고 "좋겠네 군대 안가서, 세끼손까락 이였으면 원팻을껴? 군대도 가야 했을 판인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아버지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 이 책속의 아버지는 빨치산이였고, 연좌제로 작은아버지의 원망을 받으셨고,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본인의 일처럼 도와주고 잠잘곳이 필요한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주고 먹을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빚보증까지 해주었습니다.

- 공무원의 정의를 찾아보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본인의 일처럼 도와주는 주인공 아버지의 성격은 공무원으로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보면 남들한테만 잘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 아버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처음 책을 읽으면 사회주의자, 빨치산이라는 용어가 나와 이념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구나 생각했는데 그 시대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지인들을 통해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이념보다는 본인 자체가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람으로만 편견 없이 대하는 마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였습니다. 나는 과연 편견없이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왔을까 물으면 "아니다"입니다. 앞으로 나도 좀더 사람을 편견없이 대해야 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토론 후 강평)

미라클 6월 3회 모임 협의 결과

□ **개최일시**: 2023. 6. 21(수). 14:00 ~ 17:00. □ **참석현황**: 9명/10명

□ **장소:** 오산 꿈두레도서관 문화교실1

□ **활동내용**

○ 독서토론에 대한 소감 및 의미 소통

- 독서토론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의견 나눔
- 행정실장으로서의 역량강화에 긍정 효과 기대
- 지속적인 독서 및 토론의 필요성 공감

○ 독서토론

- "어린왕자" 저자 생떽쥐베리 분석(별첨))
- 독서토론 : 별첨
- 저자 분석: 생떽쥐베리의 생에 대한 유인물 자료 읽어보기

○ 기타 7월 동아리 모임 협의

- 장소: 수원의왕 왕송호수 부근 스터디카페
  * 장소는 토론학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한번 더 확인할 예정
- 시간: 5시간 (10:00 ~ 16:00), 방학기간 이용하여 집중토론
  * 오전 2시간은 독서토론 역량강화 연수(강사: 자체)
  * 점심 식사 후 독서토론

□ **토론내용**: **"어린왕자"** , 저자:생떽쥐베리

토론주관: 조선숙	논제 발제: 김안나, 박영미
1. 전체적인 독서 소감 - 어른이 되어 어린왕자를 다시 읽었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음 - 좋은 문구들이 매우 많음.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줌. -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함을 일깨워 주기도 함	

2.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
- 관계를 맺는 것(길들이기), 사람과 사람사이 마음의 연결, 사람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 행복에 대한 의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함

3. 여우와 어린왕자의 대사 속에 나타난 행복의 가치 및 경험 사례

4. 겉모습만으로 왜곡된 생각을 했던 경험 나누기
- 특정인의 비상식적 행위가 부정적 사고로 각인되어 비슷한 외모에 편견을 가졌던 사례 등 다양한 경험을 전원 순서대로 발표

5. "길들이다" 의 의미 분석해보기
- 호기심 → 관심과 사랑 → 눈물과 인내, 성숙한 관계 맺기의 중요성, 배려 규칙 다가섬과 인내 등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
- 각자의 시각에서 관계를 맺는 것과 연결하여 전원 순서대로 발표

6. 마음으로 보아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들 경험 나누어보기

7.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 토론
- 진정한 관계 맺음이란 상대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 장미의 허영심과 잘난척하는 행위까지도 어린왕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이해

8. 도서 내용속에 숨겨진 어린왕자의 초능력

9. 어린왕자의 귀향

10. 어린왕자가 여행했던 별에서 한달 살아보기 체험

※ 7월 독서토론 안내:
- 일시: 7월 26일 수요일. 10:00 ~
- 장소: 왕송호수 인근
- 토론진행자: 김라희
- 논제 발제자: 윤옥희, 김연희

※ 회비 집행: 257,000원(과자 및 음료)

1차 집행(5월 31일 간식): 28,950원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 논제

1. 어린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4천만 부가 팔렸으며, 이는 출판된 책들 중 가장 많이 팔리고 번역된 책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301개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독서하는 사람들의 통과의례인 명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

2.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3. 어린왕자와 여우의 대사 속에는 행복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사 속에 나타난 행복의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경험사례 또는 예시를 곁들여 말씀해 주세요

"가령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다가올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그러다가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될 거야.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고 있는 거지.
네 장미꽃이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된 건
네가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4. 여러분은 살면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여 왜곡된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행성 3251호"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번 본적이 있는 별이다. 그 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학자가 입었던 옷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식이다. ... 1920년에 양복을 입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였고, 이번에는 모두 그 학자의 말을 믿었다.

5.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줄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길들이다'의 의미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 85~86)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너는 잊으면 안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6. 화자는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보아구렁이를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지만, 어른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모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사 속에도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①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음으로 보아야 더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었던 것,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아름다웠던 경험이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② ( )안에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 ) 때문이야**
- **내가 근무하는 학교(유치원)가 아름다운 것은 ( ) 때문이야**
- **( )가 아름다운 것은 ( ) 때문이야**

7. '장미'는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본 꽃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할 때 마음에 걸려 했던 대상입니다. 또한, 지구를 떠나 자신의 별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미'와 어린왕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 꽃은 이렇게 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그를 금방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의 가시 넷을 내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호랑이 따윈 무서울 게 없지만 그래도 바람은 끔찍해.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저녁엔 유리 덮개를 씌워 줘요. 당신 별은 아주 춥네요. 설비가 엉망이고, 제가 떠나온 곳은..."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그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곧 의심하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되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 주었어.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눈치했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8. 조정사인 화자와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물을 찾아 나섰고 어렵지 않게 우물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일 뿐인데 그 우물은 도르레랑 두레박이랑 밧줄 등이 함께 있는 마을의 우물같아서 꿈을 꾸는 것만 같다고 화자는 표현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왕자가 초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상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초능력을 발휘했을 것 같은 장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9. 어린 왕자는 뱀에게 물림으로써 자신이 살던 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작자는 여기에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밤에 거기로 갈거야"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노랑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담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내 꼬마 왕자를 겨우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오늘 밤은 .... 정말이야, 아저씨.... 오지 마...."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거야.....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거야. 그런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날 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걷고 있었다.
"아! 아저씨구나...."
"아저씨는 잘못한 거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야..."
"아저씨도 알 거야. 거긴 너무 멀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너무 무거워"
"그러나 그건 벗어 버린 낡은 껍데기나 같을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요..."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10. 어린왕자가 여행했던 별 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골라서 **한달살기 체험을 한다면 어느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한 이유와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별) 왕이 살고 있는 별: 어린왕자를 보고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자랑스러워 함.
두 번째 별) 혀영쟁이가 살고 있는 별: 자신을 찬양해 줄 사람이 필요함
세 번째 별) 술 꾼이 살고 있는 별: 술 먹는 게 한심해서 술을 마심
네 번째 별) 사업가가 사는 별: 바쁘게 살면서 소유관계로만 세상을 파악
다섯 번째 별) 가로등 켜는 사람. 작은 별의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
여섯 번째 별) 지리학자, 서재에 앉아 흥미로운 기억을 말해 줄 탐험가만 기다리고 있음

□ 발제문

저자명	어린왕자	출판사	인디고	읽은 날짜	2023.6.15.

내용 소개)

- "소행성 3251호".....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번 본적이 있는 별이다. 그 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학자가 입었던 옷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식이다. ... 1920년에 양복을 입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였고, 이번에는 모두 그 학자의 말을 믿었다.

1. 위 내용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여 왜곡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떽쥐베리

(출처: 위키백과)

출생 : 1900. 6. 29. 프랑스
사망 : 1944. 7. 31.
데뷔 : 1929년 소설 '남방 우편기 Courrier Sud'
수상 : 1939년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 대상 (인간의 대지)
1931년 페미나 문학상 (야간 비행)
경력 : 1944 제2차 세계대전 군용기 조종사
1926 민간 항공회사 라테코에르사 입사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성주였으므로 성(城)에서 자랐다.[3] 어릴 적부터 연극 대본 등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아서 1917년에 보쉬에 고등학교와 생루이 고등학교에서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하였으나 1차 필기에 불합격했다. 그 후 파리에 있는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 건축학과에 비학위과정 청강생으로 입학했으나 학업보다는 대학가 카페와 센 강변의 한 호텔방을 오가며 백수 생활을 즐겼다.

1921년 4월 프랑스 육군 이등병으로 징집되어 프랑스 육군 제2항공연대 항공정비병으로 근무했다. 1921년 6월에 남불 이스트르에서 자비로 민간항공기 조종훈련을 1시간 20분 동안 받고 민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922년 1월 육군 상등병으로 진급과 동시에 군용기 조종 면허장을 취득했다. 1922년 4월 파리에 있는 육군 사관후보생 EOS 과정에 입교, 예비군[4] 소위로 임관했다. 1922년 8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육군 제37항공연대 배치되었으나, 프랑스 본토 근무를 희망하여 1922년 10월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에 있는 육군 제34항공연대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5] 1923년 후일 유명 소설가, 시인, 언론인이 된 루이스 드 빌모린과 약혼했다. 이후 항공기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되어 소위로 의병 전역했다.

1923년 9월 약혼녀와 파혼한 바 있고, 했다. 1926년 테코에르 항공사에 취업하여,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지배 하에 있었던 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와 현 세네갈의 다카르간의 정기 항공우편 조종사로 근무했다. 이듬해인 1927년에는 야간 항공우편 비행을 시작했으며, 불시착 항공기 수리 업무와 조난 비행사 구조 업무도 함께 병행했다. 같은 해 <남방 우편기(Courrier Sud)>를 집필하여 작가로 데뷔하였고, 3년 뒤인 1930년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이를 출간했다. 그해 6월에는 <야간 비행(Vol de Nuit)>를 집필하였다. 이듬해인 1931년 1월에 엔리케 고메스 카리요(Enrique Gómez Carrillo)라는 과테말라인 신문 기자의 미망인 콘수엘로 순신산도발 세세냐(Consuelo Suncín-Sandoval Zeceña)와 결혼하였고, 12월에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 문학상을 받았다.

1939년 2월에 <인간의 대지>를 출판하여 그 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앞둔 1939년 9월 3일 예비군 동원령으로 민항기 조종 경력을 인정받아 공군 대위 계급을 부여 받고, 프랑스 공군 제33정찰비행대대 2비행대(Groupe de reconnaissance II/33e escadre de reconnaissance)에 동원 지정되어 공군 정찰기 조종사

□ 도서명 : 어린왕자

저자명	생텍쥐베리	출판사	인디고	읽은 날짜	2023.6. 21

책자 소개)

어린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4천만 부가 팔렸으며, 이는 출판된 책들 중 가장 많이 팔리고 번역된 책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301개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독서하는 사람들의 통과의례인 명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어릴적에 누구나 다 읽었을 책이기에 분량도 적고 그림도 있어서 쉽게 접했지만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현재 육십을 바라본 나이에 읽었어도 예전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토론하고 싶은 내용)

- "소행성 3251호".....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번 본적이 있는 별이다. 그 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학자가 입었던 옷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식이다. ... 1920년에 양복을 입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였고, 이번에는 모두 그 학자의 말을 믿었다.

이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여 왜곡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배운점과 느낀점)

요즘 100세 시대와 IT의 발달로 세대간의 언어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왕자를 읽으면서 화자와 인물들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어른들은 숫자를 포함해서 명명할 때 잘 받아들여" 란 문장에서 나역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늘 인과관계(원인-결과) 시시비비, 명확한 것을 중요시 했던 나의 성향이 때론 보아뱀, 양, 장미꽃, 여러개의 별의 내용에서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진 않았는지, 또한 내가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했으며, 나의 상상 너머의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순수한 어린아이의 관점을 접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밝은 에너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든다

토론 후 소감)

관계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 등장 인물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직장생활속에서의 관계와 소통에 대한 사례와 여러 가지 의견교환 시간을 통해 늘 생각하고 늘 배움을 통해 발전해 가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 도서명 : 어린왕자

저자명	생떽쥐베리	출판사		읽은 날짜	2023.6. 21

내용 소개)

비행기가 고장나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면서 조정사인 주인공이 어린왕자를 우연히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처음부터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다가온 어린왕자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린왕자가 여행했던 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권력에 빠진 왕,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가로등 켜는 사람, 늙은 지리학자, 그리고 지구에서 뱀과 여우를 만난 이야기까지 모두 들으며 친구가 된다. 그리고 어린왕자는 자신이 처음 지구에 떨어졌었던 곳을 찾았고,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어 떠야야 할 때가 왔다며, 자신의 별에 두고 온 꽃을 걱정하며 떠나간다.

인상 깊은 문장)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라."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첫 번째 별의 왕에게서는 명령과 지시의 합리성에 대해 배울 수 있음. 상사(임금)이 명령·지시할 때는 백성(직원)이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시하며 법령이나 이치에 타당해야 함
여섯 번째 별에 사는 지리학자에게서는 탁상공론의 허구성을 엿볼 수 있음. 가만히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음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우리가 살면서 망각하게 되는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를 통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특히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과 가치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음
때로는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을 되돌아보고 깊이 있게 본질과 의미를 파악해보기도 하면서 맑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토론 후 소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됨
어린왕자의 내용 속에 감추어진 은유와 사람사는 이야기, 삶의 본질과 모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음

[독서토론 결과물 서식]

□ 도서명 : 어린왕자

저자명	생텍쥐베리	출판사	하서	읽은 날짜	06.19

내용 소개)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한 소년을 만난다. 소년은 자신이 사는 작은 별에 사랑하는 장미를 남겨 두고 세상을 보기위해 여행을 온 어린 왕자였다.
어린 왕자는 몇 군데의 별을 돌아다닌 후 지구로 와 뱀, 여우, 조종사와 친구가 된다. 어느덧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를 길들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는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인 장미를 떠올리며 떠나온 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나를 길들여줘"
어린왕자와 여우의 대화에서 나온말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인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어린왕자가 만난 여우는 길들여짐과 친밀함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우정과 유대감을 가진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상하관계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친밀함과 유대감을 먼저 형성하고 근무를 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무수한 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무언가로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수많은 여우들 중에 한 마리에 지나지 않던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를 '길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하며, 서로를 의식하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걸 다시한번 느꼈다

토론 후 소감)

서로를 진정 알아 가기 위해 참아야 하고, 늘 생각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했을 때 때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진정한 친구로 남게된다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어린왕자

저자명	생텍쥐페리	출판사	문학동네	읽은 날짜	2023.6.19.

내용 소개)

- 주인공인 비행사가 엔진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추락한 후 어린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린왕자는 주인공에게 왕이 사는 행성,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는 행성, 술꾼이 살고 있는 행성, 사업가가 살고 있는 별,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이 있는 별, 지리학자가 사는 별, 지구등 다양한 행성과 그 행성을 여행하면서 만난 이상한 인물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해줍니다.

인상 깊은 문장)

첫 번째 행성에서 만난 왕이 너를 어린왕자에게 사법대신으로 삼겠노라 하자 어린왕자는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하니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라" 하고 왕이 말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라. 네가 너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있게 된다면 그건 네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인 것이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첫 번째 별의 주인공 왕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하로 여긴다. 겉으로 보기엔 일방적인 명령만 내리는 절대군주처럼 보이지만,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려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를 심판할수 있고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릴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일에서 다섯 번째는 아주 작은 별에서 만난 가로등 지기처럼 꾸준한 성실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어린왕자에서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어른들을 꼬집는다. 권력, 허영, 재물, 지식등을 쫓는 어른들은 자신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크지 않고 사소하다. 서로 길들여져 인연을 맺는 여우, 인연일 맺었다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들여 보살 핀 한 송이 꽃의 존재, 장미가 선사하는 향기, 그리고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마신 시원한 물 한모금처럼 사소해 보여도 행복을 주는 중요한 것이 많다. 현재 어른이 나도 다르지 않다 눈으로만 보는 것을 믿으며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얘기한다. 앞으로는 사소한 것에 행복을 찾아 마음을 정화시켜봐야 겠다.

토론 후 감평)

□ 도서명 : 어린왕자(2차)

저자명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출판사	열린책들	읽은날짜	2023.6.19

내용 소개)

비행사인 작가 자신이 사막에 불시착한 후 이상한 소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작가는 이 소설에서 현실과 상상,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은 어린왕자와 여우, 뱀, 장미꽃 등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어린왕자가 별과 지구를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의 내면의 성장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인상 깊은 문장)

1. 다른사람을 판단하는것보다 제 자신을 판단하는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네가 자신을 잘 판단할수있게 된다면, 그것은 네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2. 사람들이 어느날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3.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않는다.
4.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돼. 너는 네가 길들인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거야. 너는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5.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 흘릴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거야.

인물 및 상황 분석)

조종사: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며 비행기를 고치려다 어린왕자를 만나게 됨
어린왕자: 지구로 여행 온 작은 소행성의 왕자, 소행성에 두고온 장미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침
여우: 어린왕자에게 인맥과 길들이기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현명하고 친절한 동물

느낀점)

이 책은 인간관계, 가치관 등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삶의가치, 존재와 사랑의 의미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실된 가치는 마음으로 느껴야 함을 말해주는 듯 하다. 인간관계에서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 도서명 : 어린왕자

저자명	생떽쥐페리	출판사	한얼교육	읽은 날짜	2023.06.18

내용 소개)

비행사인 '나' 는 비행기의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소행성 B612 라는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나는 어린왕자에 통해 여우, 장미꽃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소중함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것은 기적이야. 우린 매일 기적을 살고 있구나
*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 어린왕자 vs 기성세대인 '나' 간에 소통 부재
  - 직장내에서 직원간 소통 부재의 원인은 무엇일까?
    : 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부족,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건 아닌지...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어른이 바라보는 세상은 왜 그리 변하는 걸까? 삶은 어떤 것일까?
* 그림을 통해 작가는 어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을까?
* 수많은 별들 중 의미있는 별은 있는가? 난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7월 4회 모임 협의 결과

□ **개최일시**: 2023. 7. 26(수). 10:00 ~ 17:00 □ **참석현황**: 9명/10명

□ **장소:** 효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실 (기존 모임장소 변경)

□ **활동내용**

○ 책모임의 말하기 특강 및 토론

- 독서 후 토론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의견 나눔
- 말하는 방법과 효과적 토론의 기술 습득
- 효과적 말하기를 위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기의 중요성 공감

○ 독서토론

- "불편한 편의점 1" 인물 소개(별첨)
- 독서토론 : 별첨
- 인물 분석: 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자료 읽어보기

○ 기타 8월 동아리 모임 협의

- 장소: 경기도교육복지센터
  * 장소는 예약가능 여부 확인할 예정
- 시간: 3시간 (14:00 ~ 17:00)

□ **토론내용**: **"불편한 편의점 1"**, 저자: 김호연

토론주관: 김라희	논제 발제: 윤옥희, 김연희
1. 전체적인 독서 소감 - 불편한 편의점의 '불편한~'은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였을까 생각됨 - 좋은 문구들이 매우 많음 -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음 - 편하고 쉽게 읽기 좋은 소설이였음	

2.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독고씨의 직업이 전직 "의사" 였다고 공개되는데, 독고씨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였었다면 어떤 직업이였을지 상상해보기**
- 각자의 시각에서 독고씨의 과거 직업에 대해 전원 순서대로 발표
(경찰 또는 형사, 샐러리맨, 사업가 등)

3. **아무 의욕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 하는 오여사와 독고씨의 대화를 보며, 나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경험 나누기**
-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공감가는 이야기로 미디어기기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 나눔
- 핸드폰 등 컴퓨터에 집중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한 것 같음
-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눔
- 다양한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 토론

4. **왜 작가는 제목을 불편한 편의점 이라고 했을지 생각 나누기**
- 불편한 편의점의 '불편한~' 은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였을까 생각됨
- 편의점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 혼자 밥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 24시간 어느 시간이여도 상관없이 쇼핑이 가능한 곳, 계산할 때 말이 필요하지 않는 곳 등

5. **공무원 생활 이전에 해 본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 나누어보기**

6. **염여사와 독고씨로부터 어떤 리더십을 볼 수 있었는지 토론**
- 나의 이득을 위한 편의점 운영이 아닌, 그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 염여사의 마음처럼 사무실 내 직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격려하고 지원하는 행정실장 되어보기 의견 나눔
-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해주고 성심껏 안내해준 독고씨처럼 다양한 구성원들과 뒤섞여 삭막할 수 있는 행정실 내에서 경청의 마음으로 구성원들을 대하는 행정실장 되어보기 의견 나눔

※ 8월 독서토론 안내:
- 일시: 8월 23일 수요일. 14:00 ~
- 장소: 오산 꿈두레도서관
- 토론진행자: 박영미
- 논제 발제자: 양희은, 김라희

※ 회비 집행: 지원금 - 257,000원

1차 집행(5월 31일 간식): 28,950원 - 잔액: 228,050원

2차 집행(7월 26일 중식): 92,000원 - 잔액: 136,050원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 논제

1. 불편한 편의점은 이 편의점의 사장 염영숙 여사가 가방안에 들어있는 파우치를 분실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파우치를 주운 사람이 노숙자였는데 그렇게 둘의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파우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노숙자에게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주인인 염영숙 여사가 자기 것이라고 달라고 요청할때도 주민등록을 철저히 확인하며 본인에게 돌려주는 투철한 정신에 감탄하며 이 노숙자를 자기 편의점으로 데려와 고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

2.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3. 편의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인 경만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참새방앗간인 편의점에서 혼술을 즐기며 풀곤 하는데요. 경만의 **"참참참(참깨라면,참치김밥,참이슬)"처럼 여러분도 나만의 편의점 꿀조합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4. 공무원 생활을 하기 이전에 경험한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5.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독고씨의 직업이 전직 "의사"였다고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독고씨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다면, 스토리의 전개(범상치 않은 덩치와 멧집 등)로 봤을 때 독고씨의 정체를 상상해볼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편의점 사장인 염여사가 동종업계로 스카우트 되어가는 직원을 감동적으로 보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우리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경험사례를 곁들여 말씀해주세요.

(p 53) 사장이 직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직원도 손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P 84) "서운하고 서러워야 뒤도 안돌아보고 나가지. 나가서 다른 곳 가봐야 여기가 그립지. 그리워야 고마움도 더해지고, 안그러냐?"
"벌써 고맙거든요!"
시현은 눈에서 눈물이 영그는게 느껴졌다. 노련한 사장님은 웃으며 붕어빵을 다시 와작 씹었다. 시현도 눈물을 참고 붕어빵을 씹었다. 달콤한 팥의 식감이 그녀의 혀를 간질었다.

7. “불편한 편의점”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도 있는 사연들을 위주로 고민하고, 분노하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에피소드 중 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과 인물이었을까요?**

8. 아무 의욕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 하는 오여사(선숙씨)와 독고씨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험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세요**

p106 “아들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마, 말을 안듣는다고만 하는데.. 선숙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거 같아요”

“근데 김밥만 주면 안 돼요. 편지 같이 줘요.”

선숙이 고개를 들어 독고 씨를 바라보았다. 독고 씨가 선숙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그런 그가 정말로 골든에트리버처럼 보였다.

“아들한테 그동안 못 들어줬다고, 이제 들어줄 테니 말해달라고 편지 써요. 그리고 기기에 삼각김밥 올려놔요”

9.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 '파랑새'를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남매, 틸틸과 미틸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꿈과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와 비슷한 이야기가 불편한 편의점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p140 빕딜런의 외할머니가 어린 밥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10. 편의점 사장인 염여사의 따듯한 선행이 독고씨에게 전달되고, 독고씨가 편의점의 다른 동료 직원들, 그리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까지 따뜻함과 선행이 전달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염여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생계를 더 걱정하며 인자하고 따듯한 모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정실장으로서 감동이 있고 따듯한 행정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염여사와 독고씨로부터 어떤 리더십을 찾아서 적용해보시겠습니까?

불편한 편의점 1 인물 소개

1. '염영숙 여사' : 청파동 골목 Always편의점 사장, 역사교사 정년 후 연금을 받고 있음. 청파동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없고 직원들 시급 챙겨줄 정도만 매출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함. 직원들을 잘 챙기며 따뜻한 마음을 지님. 나이는 일흔이고, 속 썩이는 아들 하나에 잘났지만 얄미운 딸이 하나 있음.

2. '알바생 시현' : 대학을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 야간알바로 들어오게 된 독고씨의 매장 교육을 시켜주게 되는데 친절한 설명에 **'편의점 교육 내용을 유튜브로 촬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됨. 유튜브가 인연이 되어 다른 편의점 점장으로 스카우트.**

3. '오선숙' : 편의점 사장인 염여사를 믿을만한 언니로 따르며, ALWAYS의 주간을 맡고 있는 알바. 남편은 가출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한 듯 게임만 함.

4. '경만' : 성실하게 사는 마흔네살 직장인이자 쌍뚱이 아빠. 그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낙이 편의점에서 '참참참(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을 즐기는 것

5. '인경' : 서른일곱의 작가. 대학로에서 배우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작가로 활동. 편의점 맞은편 빌라에서 야간 알바생인 독고씨를 관찰하며 집필을 시작.

6. '민식' :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속썩이는 아들. 나이는 마흔이며 이혼남. 엄마의 편의점 중 일부를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민식'은 편의점을 팔아서 수제맥주 양조장 자금으로 쓰려고 하지만 나중에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됨

7. '사설탐정 곽' :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노후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60살 전직 경찰관. 가족을 위한 '뇌물수수'혐의로 직업을 잃고 흥신소 일을 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음. 편의점 사장의 아들인 민식의 의뢰를 받고 야간 알바생 독고씨의 뒤를 캐고 다님

8. ALWAYS '독고' : 노숙자였지만 파우치를 찾아준 인연으로 염여사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됨. 그러면서 점차 다시 사회에 적응해가며 기억을 회복. 그리고 그가 과거에 겪었던 아픈 사건들을 마주하게 됨.(고스트 닥터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죽음, 가족과의 불화)

[독서토론 결과물 서식]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

저자명	김호연	출판사	나무옆의자	읽은 날짜	2023.7.22.

내용 소개)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역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역에서 염여사가 잃어버린 지갑을 노숙자 독고가 지켜주게 되고 이후 염여사가 지갑을 찾으러 오면서 염여사가 청파동의 한 편의점 사장님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후 염여사는 야간 근무시 불량 청소년을 만나 곤욕을 치른 자신을 지켜준 독고씨를 야간 알바 자리를 맡기게 된다. 야간 알바를 하면서 만난 알바생 시현, 알바생 선숙, 엄영숙 아들, 동네주민 영업맨, 인경, 홍신소 사장 곽씨를 만나면서의 스토리가 전개된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독고씨의 공시생 시현에게 친절한 설명에 편의점 교육내용을 유투브로 촬영해보라는 제안을 하게되고 이 유투브가 꽤나 반응을 얻고 다른 편의점 점장으로 스카우트되어 간다. 대학 졸업후 공무원만을 준비한 시현에게 다른 재능을 발견하게 해준상황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하면서 독고씨가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도 변화하게 되었지만 독고 자신또한 의료사고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마주하는 힘이 생긴상황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교사 연금으로 살고 있는 염여사는 사별한 남편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창파동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직원들 시급 챙겨줄 정도만 매출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팔지 않는다. 그리고 잘 되어 나가는 직원들에게는 축하하면 보내준다. 이런 온정적인 마음도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요즘 같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시 않고 경계해야 하는 세상에 낯선 부인의 지갑을 찾아준 노숙자 독고씨나 그런 노숙자를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경계하는 것이 아닌 선함을 베푼 편의점 사장 염여사 그로인해 옛기억을 찾고 용기를 얻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준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표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이 진심어린 작은 언행이 상대방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되었다. 사람을 편견없이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겠다.

토론 후 소감)

불편한 편의점에 등장하는 독고씨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이 무엇인지 얘기해봤으며 편의점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음.

[독서토론 결과물 서식]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

저자명	김호연	출판사	나무옆의자	읽은 날짜	23.7.20

내용 소개)

책의 시작은 이 편의점의 사장 염영숙 여사가 가방안에 들어있는 파우치를 분실하면서 시작한다. 그 파우치를 주운 사람이 노숙자였는데 그렇게 둘의 인연이 이어지게 된다. 파우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노숙자에게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주인인 염영숙 여사가 자기것이라고 달라고 요청할때도 주민등록을 철저히 확인하며 본인에게 돌려주는 투철한 정신에 감탄하며 이 노숙자를 자기 편의점으로 데려와 고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어쩌다보니... 불편한 편의점이...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소 대형마트나 쿠팡등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구매하다 보니 편의점은 1년에 한두번정도 갈 만큼 나와는 무관한 장소였다. 편의점이란 단어 자체도 고객의 편의를위해 영업하는 사업장이란 뜻이지만 그 뜻이 무색하리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독고씨의 어쩌다 보니 불편한 편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아! 편의점은 많은 사람들의 편의와 필요한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주는 꼭 필요한 공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날로부터 집 앞의 편이점들이 정겹고 꼭 독고씨가 근무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편의점의 주인인 염영숙 여사는 마음이 넓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편의점이 장사가 안되고 사업 실패한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편의점에 생계가 달린 직원들을 위해 사업이 번창하지 않아도 편의점을 꾸려나간다. 물론 편의점의 모든 시간을 본인이 하지 않고 알바를 이용해 운영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편의점을 통해 주변 사람과의 소통과 배려,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는 인품이 훌륭한 청파동의 리더이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오후 알바를 책임지는 시현덕에 편의점 사장은 마음편히 편의점을 맡기고 지낼 수 있었다. 독고씨의 권유로 포스키 사용설명을 유튜브로 하면서 시현 집과 가까운 곳의 편의점 지점장으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 그러나 염영숙 여사는 시현이 불편하지 않게 먼저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 시현을 자르려 했다는 말로 노련하게 대처한다. 나 같으면 내심 서운한 기색과 여기 편의점은 어떻게 하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을텐데...

토론 후 소감)

이책은 편의점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은 어눌하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독고씨를 통해 본인의 장점과 문제의 해결 행복해지는 비결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 투박하지만 진심어린 조언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해준다. 행복은 뭔가 대단한 새로운 것을 찾는게 아니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g

【참고자료】

□ 결과물 작성 기본 서식 :

저자명	불편한 편의점	출판사	나무옆의자	읽은 날짜	2023.7.1.
내용 소개)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주변인과의 이야기들					
인상 깊은 문장) 편의점이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외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라는 걸,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를 고쳤다. 고쳤으면 떠나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그녀가 그렇게 내게 말하는 듯 했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독고- 기억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 서울역에서 생활하다가 염여사를 만나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그 곳에서 부딪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본인 스스로 치유가 되는 인물 염여사-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하여 편의점을 운영. 교사 본능이 매사 발동하여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들이 앞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지난 가을과 겨울을 보낸 ALWAYS편의점에서, 아니 그 전 몇해를 보내야 했던 서울역의 날들에서, 나는 서서히 배우고 조금씩 익혔다." 주인공의 말처럼 관계는 소통이고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서로 나누면 오해와 불신으로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옥수수 수염차 한잔 건내는 작은 행동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토론 후 강평)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

저자명	김호연	출판사	나무옆의자	읽은 날짜	2023.07.10

내용 소개)

청파동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염영숙 여사가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파우치를 성심껏 찾아준 노숙자 독고씨를 편의점에 일하게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과 편의점 손님들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며, 점차 사회에 적응해가며 기억을 찾아가는 독고씨는 사실 아픈 사연이 있던 의사였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 독고씨가 알바생 시현에게 머리에 바로바로 들어오게 잘 가르친다며, 포스기 사용법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고, 시현은 그 일을 계기로 다른 편의점 점장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 주간 알바 선숙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며 삼각김밥을 사주고 편지도 써서 놓으라고 이야기해줌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 염영숙 여사: 오후 알바생이던 시현이 다른 지점의 점장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아쉽지만 그녀의 이직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직원을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지냈던 직원의 성장을 축하해주는 모습에서 내가 행정실장으로서 더 큰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사람들은 왠지 자신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마음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에 독고씨가 잘 나가는 의사로써 편의점 식구들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늘 필요로 하는가 보다.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

저자명	김호연	출판사		읽은 날짜	2023.7. 26

내용 소개)

염여사는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서울역의 노숙자가 찾아주게 되고 염여사는 그런 그에게 감사해서 자신의 편의점에서 '산해진미 도시락'을 챙겨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에피소드가 더해져서 서울역의 노숙자인 '독고'씨는 염여사의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하게 된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한 독고씨는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찾게 되고 마지막에는 전직 성형외과 의사였다는 그의 정체가 밝혀진다.

인상 깊은 문장)

o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o 인생은 원래 문제 해결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풀어야 할 문제라면, 그나마 괜찮은 문제를 고르려고 노력할 따름이고요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엄영숙여사: 역사교사로 정년 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영리보다는 직원들의 생계를 먼저 걱정함. 연금으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지만 전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도 모범을 보이며, 따뜻한 애정으로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함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에서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마음 씀씀이나 따뜻한 배려심 속에서 품격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음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편의점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 이웃들의 소소하면서도 따듯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 히 염여사의 모습은 퇴직 후 지향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함. 염여사의 따듯한 사랑이 독고씨에게 전달되며 편의점을 중심으로 주변 인들에게 온기기 전파되는 모습에 모처럼 마음이 푸근해지는 감동을 받았음

토론 후 소감)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3차)

저자명	불편한 편의점	출판사	나무옆의자	읽은날짜	2023.7.

내용 소개)

노숙자(독고)는 서울역에서 염영숙여사의 지갑을 찾아주며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독고씨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느리지만 의외로 일을 잘 해낼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

편의점을 오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독고씨를 관찰하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현실적인 고민과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게 된다.

청파동 작은 편의점은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웃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

인상 깊은 문장)

1. 따지고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 아닌가?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주는 일은 없을터였다.
2.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3. 사장이 직원을 귀하게 여기지않으면 직원도 손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4.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다.

인물 및 상황 분석)

독고: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인물

염여사: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정년퇴임한 청파동 always 편의점 사장님. 독고씨에게 계속 일자리와 거처할곳을 마련해주는 마음 따뜻한 할머니

염여사의아들 민식: 크게 한방을 노리며 염여사에게 편의점을 팔라고 설득하려는 중인데 독고라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거슬리게하자 그를 뒷조사 해본다

시현: 편의점 알바생으로 독고와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게됨

느낀점)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들이 많았다. 또한 주인공 독고씨가 편의점 단골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결국 자신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내용이 인상깊고 재미있었다. 사람에 대한 편견없이 다가와준 염여사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삶은 관계이자 소통이며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

저자명	김호연	출판사	나무옆의자	읽은 날짜	2023. 7. 26

책자 소개)

편의점 사장 염영숙이 가방안 파우치를 분실하면서 주운 노숙자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어 노숙자가 점차 사회에 적응을 해가는 과정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편의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임

토론하고 싶은 내용)

아무 의욕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소상해 하는 장면을 보고 자녀가 이런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배운점과 느낀점)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사연들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삶의 무게와 에 따른 따스함과 어려움을 보며 주인공처럼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이나 직원들에게도 따뜻함과 선행이 전달되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걱정하며 인자한 모습들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고 노숙자였지만 이웃의 따뜻한 관계 형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토론 후 소감)

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걸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동화책 '파랑새'에서 찾던 파랑새가 바로 곁에 있음을 깨닫듯 늘 행복이란 내 마음속에 또는 가장 가까운곳에서 내가 마음먹기에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고 노후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등장인물과 아픈 사건들을 겪으면서 기억을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든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고 헤처 나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등장인물 8명의 분석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 도서명 : 불편한 편의점

저자명	김호연	출판사		읽은 날짜	2023.7. 26

내용 소개)

염여사는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서울역의 노숙자가 찾아주게 되고 염여사는 그런 그에게 감사해서 자신의 편의점에서 '산해진미 도시락'을 챙겨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에피소드가 더해져서 서울역의 노숙자인 '독고'씨는 염여사의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하게 된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한 독고씨는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찾게 되고 마지막에는 전직 성형외과 의사였다는 그의 정체가 밝혀진다.

인상 깊은 문장)

o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o 인생은 원래 문제 해결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풀어야 할 문제라면, 그나마 괜찮은 문제를 고르려고 노력할 따름이고요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엄영숙여사: 역사교사로 정년 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영리보다는 직원들의 생계를 먼저 걱정함. 연금으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지만 전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도 모범을 보이며, 따뜻한 애정으로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함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에서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마음 씀씀이나 따뜻한 배려심 속에서 품격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음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이웃들의 소소하면서도 따듯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 특히 염여사의 모습은 퇴직 후 지향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함. 염여사의 따듯한 사랑이 독고씨에게 전달되며 편의점을 중심으로 주변 인들에게 온기기 전파되는 모습에 모처럼 마음이 푸근해지는 감동을 받았음

토론 후 소감)

독고씨의 정체가 전직 성형외과 의사였고, 의료 사고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술에 의존하면서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받게 됨, 과다한 알코올 중독은 결국 기억력을 잃게 만들고 가족들에게서 벗어나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 같은 인물과 상황을 두고 독고씨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는 일반 의사들의 의료관행으로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은 없었다고 보는 의견과 시각이 있었음

미라클 8월 5회 모임 협의 결과

□ **개최일시**: 2023. 8. 23(수). 14:00 ~ 17:00 □ **참석현황**: 8명/10명

□ **장소:**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회의실 7

□ **활동내용**

○ 독서토론의 효과 및 의견 소통

- 독서 후 토론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의견 나눔
- 독서를 통해 바뀐 생활 변화 나눔
- 직장생활 내 독서활동의 어려움 청취

○ 독서토론

-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내용 소개
- 독서토론 : 별첨
-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걷기 효과 소개

○ 기타 9월 동아리 모임 협의

- 장소: 가평 설악고등학교 등
  * 장소는 예약가능 여부 확인후 최종 결정 예정
- 시간: 5시간 (10:00 ~ 17:00), 학습동아리 컨설팅 예정
  * 오전 시간은 독서토론
  * 점심 식사 후 학습동아리 활동 결과 컨설팅, 선진지 견학

□ **토론내용**: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 KBS제작팀

토론주관: 박영미	논제 발제: 양희은, 김라희
1. 전체적인 독서 소감 - 걷는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김 - 걷기의 장점을 새삼 더 잘 알게 됨 - 다양한 걷기 방법을 알게 됨 - TV에 방송되었던 내용들이다 보니 이해하기 쉬웠음	

2. 학교 행정실의 업무 특성상 계속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기에 몸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픈 기억 또는 불편했던 점 나누어보기

3.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실제로 긍정적인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기
- 각자의 운동 경험을 전원 순서대로 발표
(맨발로 걷기, 요가, 줌바, 헬스, 등산, 수영 등)

4. 즐겁고 효과적인 걷기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 공유하기
- 시간 나는 대로 맨발로 걷기 실천 중임
- 학교 내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 근무 중간중간 교사동 전체를 천천히 걸어 돌아봄
-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이용 시 미리 정거장에 내려 걸어감
- 핸드폰 앱을 이용해 얼마나 걷는지 점검함
- 아파트 내에서 계단 오르기를 통해 걷고 있음

5. 본인 또는 주변에서 걷기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례를 접한 경험 공유하기
- 맨발로 걸으며 혈압도 낮아지고, 당뇨증상도 좋아짐
- 걷기를 꾸준히 실시해 체중감소 및 자신감이 증가됨

※ 9월 독서토론 안내:
- 일시: 9월 25일 월요일. 10:00 ~
- 장소: 가평 설악고등학교
- 토론진행자: 김안나
- 논제 발제자: 조선숙, 김금순

※ 회비 집행: 지원금 - 257,000원

1차 집행(5월 31일 간식): 28,950원 - 잔액: 228,050원

2차 집행(7월 26일 중식): 92,000원 - 잔액: 136,050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KBS제작팀)

■ 논제

1.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국내외 전문적인 취재를 통해 폭넓고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여 건강에 관련한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입니다.특히 보행의 신비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

2. **본 도서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거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 학교 행정실의 업무 특성은 주로 의자에 많이 앉아서 하는 업무로써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아픈 기억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고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4.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실제로 긍정적인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5. 본 도서에서는 걷기의 놀라운 효능과 걷기를 통해 허리통증, 무릎관절, 비만 탈출, 혈당 조절, 뇌졸중에 따른 후유증 재활치료, 암의 극복 등 기적을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또는 주변에서 걷기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례를 접하신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6. 즐겁고 효과적인 걷기를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 도서명 :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명	KBS〈생로병사의비밀〉 제작팀 지음	출판사	비타북스	읽은 날짜	2023.8.20.

내용 소개)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는 책제목과 같이 다양한 걷기 사례를 통해 병을 이긴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

- 인상 깊은 문장보다는 햇볕을 쬐면서 걷기를 하면 뼈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비타민D의 90퍼센트는 햇빛을 피부로 쬘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D가 생성되며 이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햇볕쬐기와 계단 오리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 이책은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이지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병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기가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의 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나감에 있어 힘든순간 포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 더 더 노력해보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하거나 출퇴근이동도 자동차로 해서 걷는 일이 없습니다. 이 책제목과 같이 일상생활속에서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처럼 아직은 병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잠깐의 걷기,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한 걷기, 퇴근시 걷기운동등을 꾸준히 실천해봐야 겠습니다.

토론 후 강평)

내가 너무 운동을 안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걷기도 불면증 개선에 좋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 도서명 :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명	KBS생로병사의비밀제작팀	출판사	비타북스	읽은 날짜	2023.8.10

내용 소개)

KBS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에 방영되었던 약 20회분의 방송 내용을 글로 엮어 책으로 만든 것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걷기', '계단오르기', '무릎건강'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었던 내용을 묶었다. 걷기나 계단오르기등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걷기의 효능, 올바르게 걷기등 실용적인 내용을 다룬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2장: 통증과 질병을 이겨내다: 걷기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은 건강한 노후에 대한 열망이 있다. 올바르게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준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30년을 걷기를 했던 한경린씨는 잘못된 걷기로 무지외반증이 생겼다. 걷는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강도를 높여서 걷는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절한 강도로 걸어야 한다. 건강한 걷기,약이되는 걷기, 성공적인 걷기를 해야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좋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너무 편해진 삶속에서 내 몸을 조금만 불편하게 해서 움직이면 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이 책에서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걸으면 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것부터 바꿔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시한번 하게 된다.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걷기만해도 병이낫는다(4차)

저자명	kbs[생로병사의비밀]제작팀	출판사	비타북스	읽은날짜	2023.8.

내용 소개)

저자는 이 책에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조건 걸어라' 라고 말한다.
이 책은 걷기의 형태별로 실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고 걷기가 왜 건강에 좋은지, 다양한 걷기운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걷기 운동으로 질환과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걷기 운동방법은 물론 상황별 걷기 운동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는 점이 눈에 띈다.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 한권의 힘을 반드시 공감하게 될 것이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가까이 두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

걸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3가지를 체크하라

1. 선 자세 점검하기

몸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균형이 잘 맞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귀, 어깨, 발목바깥쪽 복숭아뼈를 선으로 이어 일직선으로 잘 유지되어야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2. 3단계 발디딤 점검하기

정상적인 보행은 3단계 발디딤이 이루어져야 한다. 뒤꿈치부터 충분히 딛고 시작해서 발바닥 전체로 딛고 체중이 앞쪽으로 치우치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3. 하체 근력 점검하기

관절 자체의 기본생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관절 연골에 영양이 공급된다.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연골이아 뼈 등 인체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할수있다.

느낀점)

평소에 저녁식사후 또는 강아지산책을 위해 걷고 있지만 오래 걷지않아 시간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 되는 날에는 덥다는 핑계로 거의 나가지않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 습관처럼 매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론후 소감)

회원들 간 자신만의 걷기방법, 건강회복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보다는 걷기를 일상화 하면서 생활해보려 한다.

□ 도서명 :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명	KBS 생로병사 제작팀	출판사	비타북스	읽은 날짜	2023. 8. 23

내용 소개)

걷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교통이 발달하고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들, 직업상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 등 현대인들에게 두발로 걸을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관절염, 디스크,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도서에서는 이러한 만성질환도 걷기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소개하면서 올바른 걷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주고 있다.

인상 깊은 문장)

o 출뇌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우리는 직업의 특성 상 앉아서 사무를 보는 일이 주를 이룬다. 걷거나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학교 행정실의 현실이다. 그나마 행정실장은 학교 시설을 점검하거나 순시를 하면서 잠시나마 걷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직원들이다. 본 도서를 읽고 나서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의 중요성과 걷기의 긍정적 효과를 안내하면서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하루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관계로 목디스크나 허리 관련 질환, 시력관련 질환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행정실 고경력 직원들이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본 도서를 읽고 꼭 실천이 수반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 등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있었지만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충분히 운동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 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고, 걸을 때도 도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보폭을 넓혀서 충분히 운동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토론 후 소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기도 하고, 매일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본인만의 건강관리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생활습관을 통해서도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걷기운동부터 바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도서명 :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명	KBS생로병사의비밀제작팀	출판사	비타북스	읽은 날짜	2023.8.16.

내용 소개)

KBS 건강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걷기와 관련된 약 20회분의 방송 내용을 글로 엮어 만든 책으로, 걷기나 계단오르기 등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걷기의 효능, 올바르게 걷기 등 실용적인 내용을 다룬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맨발 걷기, 햇볕을 쬐면서 걷기,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적은 시간이라도 운동 시간을 가지면 효과가 있다는 것 등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의 특성상 걷기는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인류가 그 옛날부터 걷기에 특성화 되어 있었음에도 현재에 도달해 각종 편의시설과 여유없는 시간으로 걷는다는 것을 비효율적이고 시간낭비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매우 많다.
하루 중 학교 내에서 잠시 시설점검하는 목적으로라도 교내를 돌며 걷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책에서 본 것처럼 자세를 갖추어 걷도록 노력해야겠다.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걷기만해도 병이 낫는다

저자명	KBS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출판사	비타북스	읽은 날짜	2023. 8. 23

책자 소개)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국내외 전문적인 취재를 통해 폭넓고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여 건강에 관련한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입니다. 특히 보행의 신비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줌

토론하고 싶은 내용)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고, 일상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즐겁고 효과적인 걷기를 위한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대해서

배운점과 느낀점)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다. 산행을 할때나 둘레길을 돌다보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에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는데 토론을 통해서 1년넘게 1시간 이상씩 맨발로 걷기를 통해 불면을 치료하고 건강이 달라졌으며 맨발걷기로 당뇨 등 각종 질병 치료한 주변사람들의 사례를 전해줘서 주저했던 생각을 버리고 바로 실천을 해 볼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토론 후 소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행정실의 업무 특성상 컴퓨터로 업무포털 시스템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므로 책상에 앉아서 하게 되므로 직업적인 특성 상 운동부족, 어깨근육 뭉침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럴수로 시설 현황파악, 업체 점검등에 같이 동행하여 걷는 시간도 늘리고 책상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 화장실도 먼곳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운동시간을 점검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건강을 염두에 두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미라클 9월 6회 모임 협의 결과

□ **개최일시**: 2023. 9. 25.(월) 10:00 ~ 17:00 □ **참석현황**: 9명/10명

□ **장소:** 설악고등학교, 청심국제고등학교 및 일원

□ **활동내용**

○ 독서토론의 효과 및 의견 소통

- 독서 후 토론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의견 나눔
- 독서를 통해 바뀐 생활 변화 나눔
- 직장생활 내 독서활동의 어려움 청취

○ 독서토론

-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내용 소개
- 독서토론 : 별첨
-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소통방법 토론

○ 선진지 견학

- 장소: 청심국제고등학교 등
- 국제고등학교의 시설현황 견학 및 운영시스템 소개

□ **토론내용**: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 저자: 김범준

토론주관: 김안나	논제 발제: 조선숙, 김금순
1. 전체적인 독서 소감 -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책 - 리더를 위한 지침서 - 상대방을 포용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줌 - 행정실장으로 사적인 관계의 말투와 공적인 관계의 말투가 다름을 알게됨 - 감성에만 호소하는 말투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됨 - 논리정연하다고 다 같은 설득력을 가진 말이 될 수 없음을 알게됨 -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됨	

2. 학교 행정실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협의할 때의 말투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 나누어보기

3. 옛 속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친절하고 진실을 담은 말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겪었던 말투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한 사례 이야기해보기
- 각자의 말투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 전원 순서대로 발표
(신규일 때, 회의 석상에서, 직원회의 때, 간담회 때 등)

4. 말투 교정을 위해 노력해봤던 사례 및 경험 공유하기
- 관련 도서 읽어보기
- 동료들로부터 조언듣기
- 자신의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기
- 미소띤 얼굴로 말투 연습하기

※ 5~9월 독서토론 컨설팅
- 도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어린왕자」, 「불편한 편의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 컨설팅 진행자: 김상원
- 컨설팅 내용
: 독서토론 발제문 발췌 방법, 퍼실리테이션 기술, 독서동아리 활동시 힘들었던 점·유익했던 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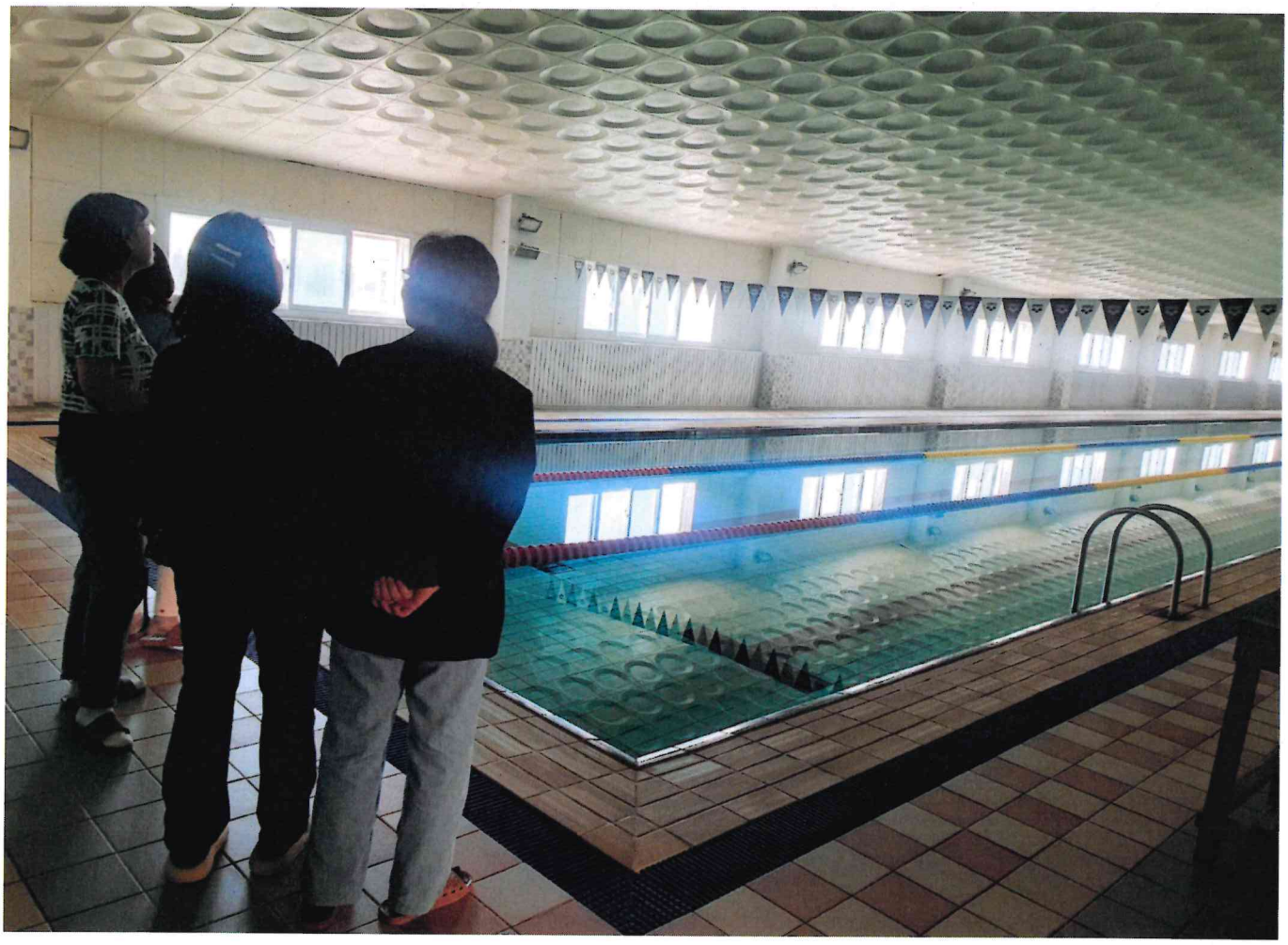
※ 회비 집행: 지원금 - 257,000원

1차 집행(5월 31일 간식): 28,950원 - 잔액: 228,050원

2차 집행(7월 26일 중식): 92,000원 - 잔액: 136,0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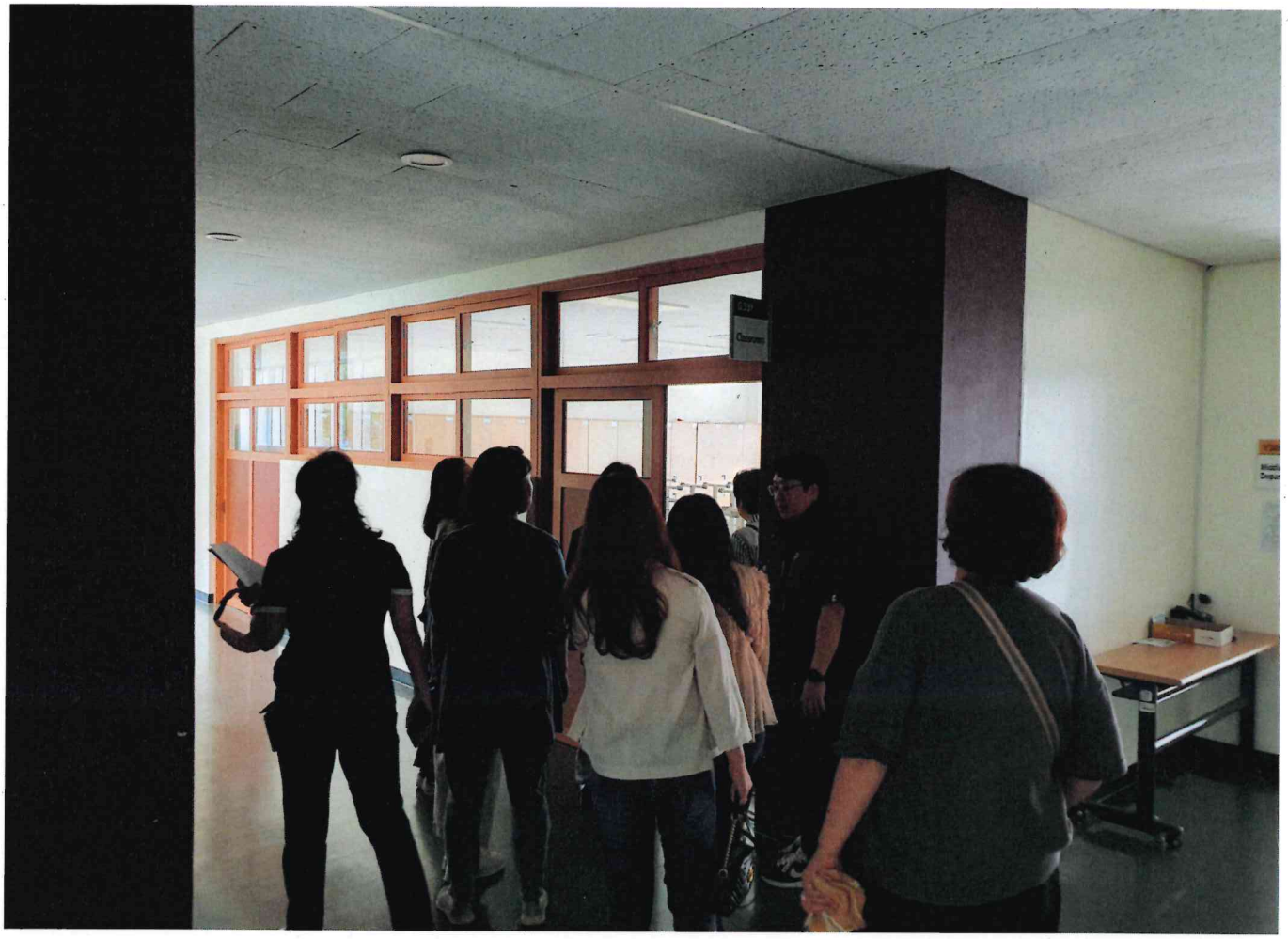
3차 집행(9월 25일 중식): 136,050원 - 잔액: 0원








애천
애인
애국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김범준)

■ 논제

1. 우리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었던 말투를 찾아 고쳐봄으로써 만나면 기분 좋은 말투,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말투 등 올바를 말투를 사용하여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을 말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

2. 본 도서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거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 말투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면서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여러분은 저자의 말투에 대한 논리와 감정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또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다. 존칭을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논리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도 없다.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 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데 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더는 성공적인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4.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로부터 친절하고 진실을 담은 말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려분이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말투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5. 학교의 행정실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고, 행정실장의 위치에서 원할한 학교 운영을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강하게 주장을 요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행정실장의 상황별 말투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말투는 어떠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6. 본 도서를 읽고 각자 본인의 말투에 대해 평가해보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기분좋은 말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훈련하고 노력하실지 구상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상계획 중 한가지만 서로 공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명 :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명	김범준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읽은 날짜	2023. 9. 25

책자 소개)

모든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투다. 말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관계를 결정짓는 힘은 말투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알고보면 말투부터 다르다. 말투는 인간관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하고 싶은 내용)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다. 존칭을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논리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도 없다.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데 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더는 성공적인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토론하고 싶다.

배운점과 느낀점)

우리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었던 말투를 찾아 고쳐봄으로써 만나면 기분 좋은 말투,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말투 등 올바를 말투를 사용하여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을 말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토론 후 소감)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관계를 맺을 때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이 열린다. 행정실의 업무 특성상 여러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더더욱 정제되고 신중하게 해야되며 또한 각자의 위체에 따라 달리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교사에게 관리자에게 부하직원에 맞게 함으로서 상대에게 신뢰를 얻고,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아지는 말투로 관계도 한결 좋아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참고자료】

□ 결과물 작성 기본 서식 :

저자명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읽은 날짜	2023.9
내용 소개) 일상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말하기 습관에 대한 이야기 소개					
인상 깊은 문장) 성급한 사람으로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는가. 설득하겠다고 대화하겠다고 핵심 문제에 함부로 뛰어드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가 될 사람들이라면 상대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여유있는 말투가 더더욱 필요하다. 리더라면 리더답게 나와 다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리더가 지녀야 할 필수 자격 중 하나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말은 사람의 생각을 짊어진다. 말에는 무게를 실을 수가 있다. 가볍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가볍게 받아 넘긴다. 무겁게 말하면, 강력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말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순간 나와 의견이 다른사람을 비난하거나 이해 못한다고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 많이 듣고 포용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토론 후 감평)					

□ 도서명 :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명	김범준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읽은 날짜	2023. 9. 21

내용 소개)

인간관계에서 말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투로 인해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고, 좋은 말투는 어떠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투는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알려주고 있다.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게 하는 말의 습관에 대해 안내하며 상황별, 장소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투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격적이지 않고 단호하게 나를 표현하는 법까지 다양한 사례와 인간 심리적인 부분까지 적용하여 상대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인상 깊은 문장)

o (사과의 타이밍) 사과를 늦게 받았을 때 감정 상태가 가장 큰 폭으로 좋아졌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한 후 사과하는게 낫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분노든 서운함이든 상대가 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다.

o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칭찬에 발이 달린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행정실장의 리더십) 사적인 관계의 말투와 공적인 관계의 말투는 달라야 한다. 예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말투는 변함없이 몸에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논리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말투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감성에만 호소하는 말투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성향과 생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적인 관계에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의식중에 자녀들과의 대화속에서도 평가절하하는 말과 비교하는 말들을 내뱉곤 해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이번 기회에 내 말투에 대하여 반성해보고 좋은 말들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말이 또는 습관이 생각을 바꾸기도 할 것 같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기분좋게 말하는 것도 학습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급적 내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습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의도적으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험담과 불평보다는 덕담과 칭찬을 많이 해서 긍정적이고 기분적인 에너지지를 말로라도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론 후 소감)

상대방의 기를 꺾어버리는 말투와 단어들이 있는 반면 대화와 말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다시한 번 느길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 받은 상처가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플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도서명 :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명	김준범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읽은 날짜	2023.9.15.

내용 소개)

말투를 통해 호감형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일할 때 관계도 훨씬 좋아지며,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의 기술에 대한 책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상대방의 약점에는 절대 공감하지마라 - 나의 약점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은 것일 뿐 따끔한 충고가 필요해서는 아니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학교에서 행정실을 총괄하는 교육행정실장으로 인력관리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특히나 수많은 직종이 혼재되어 있는 학교에서 인력관리는 까다로우면서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된 영역이다. 이런 영역에서 이번에 읽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행정실장으로 가져야 할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
특히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라고 기술한 부분은 자칫 내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이라고 착각하는게 아닌가 다시금 내 말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아지는 말투인 덕분에....., 당신을 믿습니다....등은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되었다.

토론 후 소감)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명 :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명	김범준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읽은날짜	2023.9.

내용 소개)

이 책은 기분좋은 소통과 관계를 만든 사소한 말투의 기적에 대한 책이다. 말투는 버릇이며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두마디에 담긴 말투 하나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계를 결정하며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화를 나눌 때 느낌이 좋은 사람은 어떤말투를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말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

좋은말투의 법칙

1. 호감형 인간이 되는 첫걸음 메라이언 법칙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말투나 표정,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93%의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말의 내용이나 언변보다는 표정, 목소리, 태도, 말투와 같은 요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2. 과거경험을 이용한 설득의 심리학 면역효과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신자의 과거 경험이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항체가 형성되어 이후 강한 바이러스에 저항하듯이 약한 메시지를 받아 면역성을 키운 사람들은 강한 설득 메시지에도 잘 저항한다.

3. 사과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즉각적인 사과보다 화를 실컷 낸 후에 한 사과가 효과가 더 컸다. 상대방이 화도 내기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은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끝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분노든 서운함이든 상대가 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다.

느낀점)

'사람은 말투로 기억된다' '말투만 살짝 다듬어도 사람이 달라보이고 언제 어디서나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란 문장이 와닿으면서 나는 다른사람들에게 어떤사람으로 기억될까 생각해보게 된다. 말투는 나의 기분이 그대로 들어나서 표현되기 때문에 감정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말하고난후 뒤늦은 후회를 하는경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더 조심스러워지는것같다. 이 책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 도서명 : 모든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명	김범준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읽은 날짜	2023.9.23.

내용 소개)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르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아지는 말투,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 버리고 싶가면 좋은 말투,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나를 포현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

- 말투는 의사전달 수단을 넘어 곧 그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릇이고 꼴이다,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한다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의지를 구체화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난 속마음의 내용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 나를 화나게 한 그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을 때, 상대가 나를 기분좋게 했을 때, 상대방이 사용한 말투를 기억해뒀다가 그 말투를 사용하면 된다.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를 상대방에게 해주면 되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는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써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메이크업 말투을 연습하면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을 것 같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에서 힘들다고 하면 일 자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다고 더 많이 느껴진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내가 하는 말투가 어떻지 생각해보고 예쁜 말투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 후 강평)

- 좋은 관계를 맺기위한 기분 좋은 말투를 위해 노력을 해야 겠다.

[독서토론 결과물 서식]

□ 도서명 : 모든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명	김범준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읽은 날짜	23.09.25

내용 소개)

저자 김범준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 회사원으로 재직중인 분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설루션을 전파하는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의 흐름'에 관심이 많아 이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분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을 익히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상황)

당신의 비 언어적 행동이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배나 더 강하게 부정적이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무려 8배나!
실제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갑자기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상했었고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는데 8배나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 8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으니 내가 기분이 상했던 것이 아주 당연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겠다 다짐하게 됨

인물 및 상황 분석 ▶ 리더십 적용 찾아보기

[그렇군요! 만으로 완벽한 회의를 만들 수 있다.] 회의를 할 때 일방적인 내 생각을 말하고 직원들이 할 일을 체크하는 방향으로만 회의를 했던 것 같아 반성의 기회를 가지수 있었다.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호응이 좋고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를 키우도록 노력해야겠다

기타 배운점과 느낀점)

말하기 센스는 바로 변화를 가지기 힘들 수도 있다 습득하여야 하는 지식과 전략을 더불어서 많은 것을 쌓아가야지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말투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잘못된 말투는 한순간에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전락해 버리게 하지만 반대로 좋은 말투 한 마디는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말투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도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일도 관계도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기분좋아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동안 말투 때문에 본의 아니게 관계에서 오해를 만들고,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호감형 말투를 장착하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자..

토론 후 소감)

모든관계는 책 재목과 같이 말투에서 시작된다. 토론 후 가깝다고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한거 같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말투를 바꿔봐야겠다 너 때문에가 아닌 너 덕분에로..